

4월27일(월)

누가복음 1:1-4

제목: 누가복음을 읽고 공부한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 그에 관한 내용을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예수의 여러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그의 생애를 기록하였다.(2절) 누가도 자기 경험과 상상이 아닌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경험한 목격자들의 자료를 토대로 그의 생애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누가는 그 기록 목적을 데오빌로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3절) 여기서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수는 없지만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누가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배운 바를 더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4절) 여기서 ‘배운 바’ 라는 말은 오늘날 교리문답의 근원어이다. 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과연 완전할까? 내가 더 깊은 기독교 진리를 터득하고 더 깊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누가복음을 통독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다른 복음서도 좋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의도를 볼 때 반드시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한다.

4월28일(화)

누가복음 1:57-66

제목: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다.(63절)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이다. 임신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에 ‘하나님의 선물’ 이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그 부모의 신앙고백이었다. 구약의 위인 사무엘도 마찬가지이다. 불임 상태였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 덕에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자’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식의 이름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자식이 착하고 의롭고 위대하고 유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는다. 특히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기 바라면서 예수님 ‘예’ 자와 하나님 ‘하’ 자를 그 이름에 넣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는 성서의 위인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에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가 그 이름만 열심히 부른다고 자식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마다 그 이름에 담긴 뜻과 의도를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도 그렇게 따라간다.

4월29일(수)

누가복음 1:67-80

제목: 당신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세요

본문은 사가라의 찬가이다. 이 찬가의 구성은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68-71절)와 구원의 언약에 대한 감사(72-75절)와 세례요한의 사명(76,77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찬가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의 탄생은 이스라엘에 한줄기 큰 빛이 내린 사건이었다. 구약의 말라기와 예수님 탄생 사이의 약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낸 빛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강하게 훈련받았다. 빈들에서 자랄 만큼 육체적으로 강인했고.(80절) 그리고 심(心) 즉, 마음과 의지도 깨끗하고 강하였고, 영(靈)적인 사람이었다.(80절) 여기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의 세 요소가 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이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세례요한처럼 키워야 한다. 육체가 강건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E.Q)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길러야 한다. I.Q 높고, 학교 성적 우수하다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아니다. 세례요한처럼 깨끗한 마음과 영성을 소유하고 자기 신체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자가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

4월30일(목)

누가복음 2:1-7

제목: 방을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로마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에 따라 호적 신고를 위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1-5절) 그 때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다.(6절)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해산할 방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나 모든 방들이 다 만원이었으므로 거절당했다. 그들은 사관(여관) 조차도 구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여관에 딸린 구유(외양간)에서 예수를 낳게 되었다.(7절) 해산할 방이 없어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방을 찾으셨으나 거절당하신 예수!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첫날부터 방 입구에서 서성거리셨던 그분은 이제 사람의 마음 입구에서 서성이고 계신다. 일생을 입구에서 계셔야 할 운명을 가지신 예수님! 그는 시작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입구에서 계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2000년 동안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입구에서 서성이시는 예수님은 언제쯤 편히 쉬실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이일을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5월1일(금)

누가복음2:8-20

제목: 아기탄생을 최초로 안 사람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8-12절)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본 최초의 사람도 목자였다(16-17절) 그리고 그 사실의 최초의 증언자도 목자였다.(17-18절) 이 목자들은 밤에 만 일하는(8절) 파트타임 목자들이었다. 이들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방목하고 있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었다. 그것도 밤에만 관리를 한다. 영하로 떨어지는 팔레스타인의 밤 날씨 속에서 양들의 체온에 의지해서 가까스로 잠을 청할 수 밖에 없는 고달픈 밤 당번 목자들!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의 탄생 소식을 이 밤 당번 목자들에게 알리셨다. 왜일까? 이들은 자기들이 너무 보잘 것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난 것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외에는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